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포교 새 원동력



이현정의
불교와 스피치
⑨ 포스트코로나 포교와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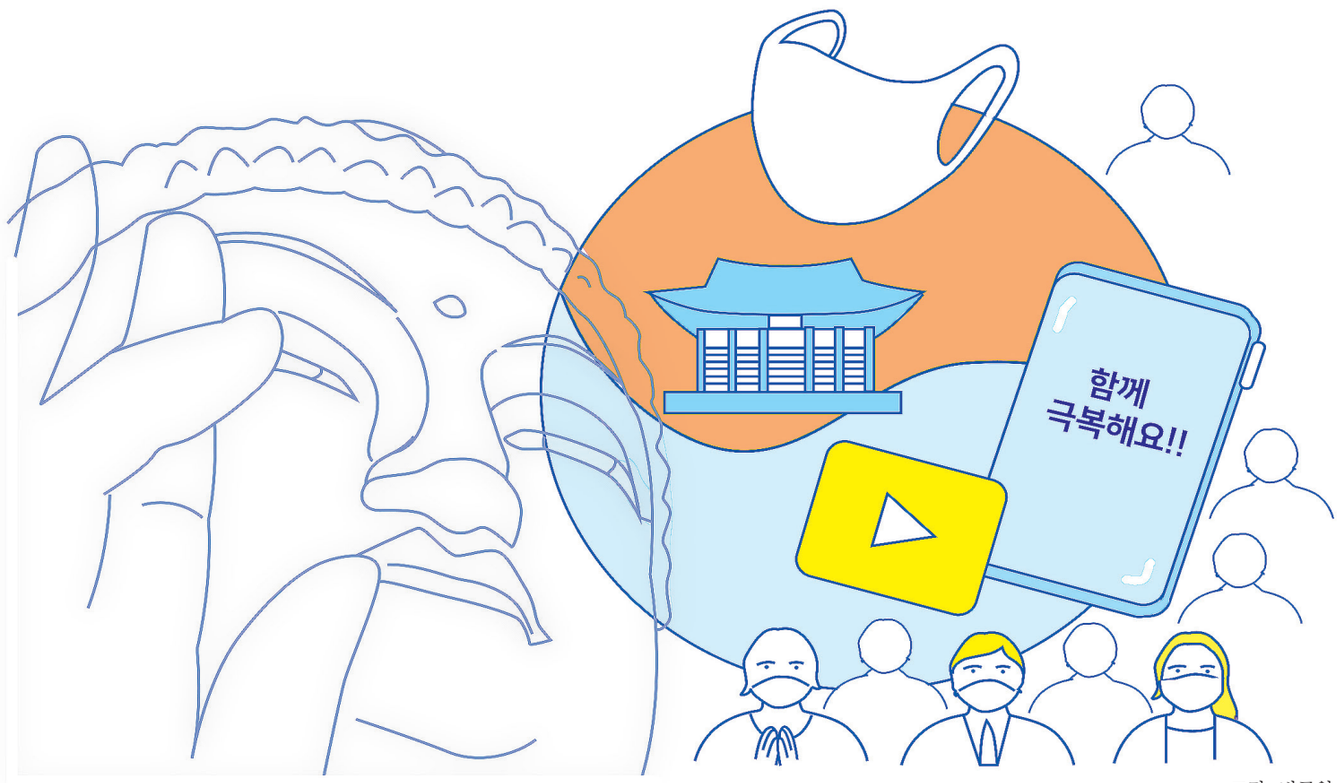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현상(pandemic)이 계속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zoonsis)의 창궐은 불자에게는 남다르게 와 닿는 면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줄기차게 달려온 과학문명의 질주와 서구사회우위의 동양의 열등의식으로 인한 성급한 경제개발, 인간우월주의에 짓밟힌 자연과 환경의 폐해, 주위를 배려하지 않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혼합형 몰인성주의, 생태환경의 악화일로로 인한 기후변화, 이로 인한 공기오염 등으로 각종 질병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각종 현대병들이 줄줄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인간편의주의로 달려온 물질문명에 강한 쐐기를 박은 사례가 바이러스의 출현이 아닌가 싶다. 이렇듯 대유행병의 메시지는 종교인으로서 각별한 의미부여로 연결된다.

코로나 위기에서도 한국은 또 한번의 한류의 위상을 높였다. 예전에 우리의 단점으로 보여졌던 공동체 문화, 부화뇌동 등의 열등한 사회현상 및 한국인만의 모습들이 코로나 사태로 뒤집히면서 강한 일체감을 보여주며 K방역과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모범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예전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이로 인한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며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듯이, 코로나 역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의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공통점을 보면, 기존의 우열이 뒤바뀌고, 미추(美醜)가 달라 보이며, 시각의 관점, 사상, 철학, 기저문화 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이라는 편협한 생각도 버려져야 하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라는 단정이 옳지 않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바이다. 세상에 있는 생명체 하나하나가 다 각자 나름의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할 대상들이었다. 더구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은 인간의 무력감을 여지없이 보여주며, 맥없이 주저앉게 만들어버렸다.

기원전 5세기 경 인류의 정신적 발전에 중심축을 이룬 위대한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 전의 무지몽매한 살육과 투쟁이 난무했던 삶에서 인간의 정신고양의 정점을 이룬 일대사 전환점이었다. 칼 야스퍼스(Karl Theodor Jaspers,1883-1969)는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에 동서양이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각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상의 혁명, 사유의 정신적 고찰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기축시대(Axial-Age)' 라고 명명했다. 인도에는 우파니샤드(Upanisad) 철학이 있었고 부처가 살았던 시대였으며, 힌두교와 불교가 태동했다.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공자(孔子)와 노자(老子)가 살았고 수많은 제자백가들이 활동했다. 이란에서는 짜라투스트라(Zarathustra)에 의한 세계관이 만들어졌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사야(Isaiah)와 예레미아(Jeremias)등이 대거 출현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호메로스(Homeros),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 소크라테스(Socrates) 등의 소피스트들과 문학가들이 존재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유일신 종교들이 속속 태동했다. 야스퍼스는, 이 기축시대는 인간실존을 깨닫고 이를 통한 현명한 자세와 생활을 하게 되었던 정신화작용(Vergeistigung)이라고 했다. 이 기축시대의 사상과 철학, 종교는 현재까지도 인간의 삶의 방향타구실을 할 정도로 가장 근원적인 철학과 인간의 심성을 원만하게 해주는 종교로 연결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커뮤니케이션은 삶의 일부
간결 · 명확 · 대안 키워드
온라인 소통으로 포교확장

코로나 사피엔스는 불교적 생활

어려운 시점마다 종교는 존재이상의 영향을 부여해주고 있다. 국난이 있거나 재앙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생각의 관점을 바꿔주면서 강한 인간의 주체성을 확립시켜주었다. 보이는 적이 있을 때는 무참히 적을 방어하기 위해 과감히 나서기도 했고, 한 나라의 백성들의 자신감을 부여해주기 위한 여러 불사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졌다.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마치 전시체제처럼 사람들을 집에 가둬놓았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종교 활동도 자연히 멈추게 되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일도 위축되었는데 다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였다.

소비가 미덕인 20세기의 큰 축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오히려 집에서 더 편안히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리미티드(limited)의 심리를 건드린 명품대열은 더 간절해지고 완판되는 기염을 보이면서 인간욕망의 불꽃을 더 타들어가도록 불지르고 있다. 이에 잘사는 사람의 소비 덕질은 더 심해지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 욕망의 질주에 대한 욕구, 절제에 대한 멈춤의 자각이 더 격렬히 맞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양분화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불교는 어떠한 방향성을 조준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의 혼란과 불안을 바로 세워 시대적 소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전의 펜데믹과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인류에게 하루가 다르게 생사여부를 가르는 강한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인간의 삶의 자세는 기존의 사상과 철학, 성찰 등을 통해 확대되어 보인다. 이러한 극한의 과정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불교에는 여러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어떤 난관에도 거뜬히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부처님 말씀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4부 대중 모두는 욕망의 덩어리로 달려온 생활을 잠재우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 그동안의 막행막식에 대한 참회와 숙고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저마다 한국 최고의 탑, 동양 최대의 불사 등으로 경쟁 삼아 치닫던 불사경쟁도 실로 무의미해진 느낌이다. 언컨택트 시대가 본격화 되고, 우리의 생활상이 거의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시대로서 오히려 큰 규모의 대면 가능한 오프(off)사찰은 부담스러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포교에 대한 진취적인 생각은 사실상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전 인류적 재앙의 흐름, 전 지구적 변화, 인간 삶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예민한 추이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코로나 사피엔스(Corona Sapiens)' 라며 앞으로 더 지능적인 바이러스들이 3~5년마다 창궐할 것이고 문명의 대전환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다. 위에서 상론했듯이, 삶의 방향성은 불교식 생활이다. 환경 친화적, 자연공존, 물질의 절제, 탐 · 진 · 치 소멸지향의 생활, 자연에 대한 경외감 및 아상을 녹이는 자기관리, 끝없는 욕심을 자제하는 수행력, 과도한 개발과 불필요한 생산은 지양한다는 점이다. 낭비를 줄이고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코로나 사피엔스적 삶이다.

포노 사피엔스, 포교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서 모든 집단적 모임, 공동체, 단체모임 등은 문을 닫게 되었다. 이 중에 종교시설에 대한 금지가 강해진 것은 기독교계통의 몇몇 교회들의 반항적 저항으로 기인한다. 사찰의 법회들은 저마다 알아서 문을 닫았고, 정부지침에 잘 따라주고 있다. 사찰은 이제부터 다른 문화를 열어가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과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앞으로의 새로운 시대를 잘 적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서야 시작되었듯이 2020년 2월 코로나(Covid19)로 드디어 21세기의 문이 열렸다. 19세기 유럽의 중심세상에서 20세기로 들어선 미국의 패권으로 유럽, 미국이라는 거대 서양의 흐름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코로나가 분기점이 된 현 시점에서 서양문화의 흐름이 동양문화로 변화되고 있다. 사상과 철학, 종교 등 인문학적이며 심성적인 면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많은 부분이 동양 사상으로 회귀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도 SNS, 각종 디지털 기기들의 진화 들 속으로 대량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많은 정보를 수많은 온라인시스템들로 실어 나르고 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서 처음 등장한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생활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전 인류 대다수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삶을 가리키는 포노 사피엔스는 불교포교의 힘도 여기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부처님말씀으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효과적인 메시지를 위한 포노 사피엔스적 방법을 알아본다.

첫째 간결해야 한다. 온라인매체에서는 짧고 간결해 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요구한다. 이를 10초 안에 사로잡는 '밈(Meme)' 의 과학이라고 한다. 밈은 문화적 복제라는 의미로 틱톡(Tiktok)이 불을 지른 격이 되었다. 단 몇 분 안에 보고 넘기며 즐기는 시대적 소통도구이다. 짧은 영상이나 문구로 긴 여운을 남기는 밈은 보는 자의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한다. 이에 따른 각자의 댓글과 후기의 문화, 이를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맞춰보는 시대이다. 따라서 불교포교의 문구나 영상은 짧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매력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 뭔가 불교에 관한 내용 같은데, 한자투성이거나 봐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단어이거나, 의구심이 들게 보인다면 아무도 퍼다 나르지 않는다. 온라인 시대의 포교는 짧은 문구라도 감동이 전해지면 알아서 저마다 퍼다 나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온라인 자동포교 시스템이다. 한자로 된 문구는 유아, 청소년, 젊은 층, 중년층까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외마디라도 가슴에 젖어들 수 있는 시대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메시지에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빠른 이해를 유도하여 전달속도를 높인다. 문장구조에 함몰되면 형식에 치우치기 쉬울 수도 있으나, 전 세계인을 향한다면 보편적인 구조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넷째는 청중을 세계의 불특정다수로 여기고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대안, 현 시점의 문제해결 등을 불법으로 연결시켜준다.

다섯째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불교의 폭넓은 자비심을 펼쳐준다. 불교 자체는 다문화, 다종교, 포용력이 특징이다. 시대에 맞는 종교로서 열린 마음과 자세를 보여준다. 시대적 편견과 지역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말과 글의 총체적인 합산물로서, 이를 위한 준비, 기획, 아이디어 교류, 훈련, 교육 등을 주도면밀하게 하여 21세기를 불교포교의 새로운 세기로 만들어야 한다. 〈끝〉

〈불교스피치 전문가〉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